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3강 산악인 엄홍길 대장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이 있다 자신의 목표를 향해 도전하라

“도전하는 자만이 성취할 수 있습니다. 힘차게 자신의 목표에 도전하세요.”

산악인 엄홍길 대장은 지난 2일 광주 상무지구 라마다호텔 3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세 번째 강의에서 히말라야 8000m급 16좌 완등을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특유의 열정적 목소리로 들려줬다. 엄 대장은 2시간여의 강연을 통해 지칠 줄 모르는 도전정신과 신념, 희망을 역설했다.

**히말라야 8000m 16좌 완등
도전정신·신념·희망 역설**

1998년 엄 대장은 ‘풍요의 여신’으로 불리는 안나푸르나 4번째 도전에서 위기를 맞았다. 7700m 지점에서 빙벽 아래로 미끄러지는 세프와 2명을 구하려다 엄 대장은 오른쪽 발목이 180도 꺾이고 복사뼈와 종아리뼈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는다. 베이스 캠프가 있는 4500m까지 2박3일간 무릎과 팔꿈치로 기어 내려와 ‘죽음의 터널’에서 기적적으로 구조된다. 이후 처절한 재회를 거쳐 10개월만에 다시 설산으로 향했다.

엄 대장은 당시를 설명하며 “안나푸르나 신이시여, 꿈을 이뤄주세요. 제가 살아있는 한 (16좌 완등) 목표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간절히 빌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희망은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게 하고, 불가능한 것도 성취하게 해준다”고 말했다.

엄 대장은 1995년 봄 마칼루 등반을 마치고 내려오며 ‘나도 한번 해보자’며 8000m급 16좌 완등을 인생목표로 세웠다. 하지만 산의 영역이라 하는 8000m급 산들은 호락호락하게 정상등정을 허용하지 않았다. 에베레스트와 낭가파르바트, 칸첸중카는 각각 3번째 도전 끝에, 안나푸르나는 다섯번째 도전 끝에 성공한 것이다.

엄 대장은 “에베레스트에 2번째 도전했던 1986년 세프와 한명이 추락사했다. 눈앞이 캄캄했다. 땀



산악인 엄홍길 대장이 지난 2일 광주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에서 히말라야 16좌 완등과정을 설명하며 도전정신과 열정을 강조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히말라야에 16개 학교 건립

네팔 어린이들에 꿈·희망을

가 될 것같이 쉽게 보이던 것이 거대한 괴물처럼 바위덩어리가 쏟아져 내리는 느낌이였다”며 당시 느낌을 회고했다.

이러한 도전 끝에 엄 대장은 1988년 에베레스트부터 2000년 K 2까지 14좌를 오른후 위성봉인 로체사르와 알퐁강까지 2007년에 총 16개의 히말라야 8000m급 봉우리를 세계 최초로 등정하는 위업을 달성하게 된다.

엄 대장은 16좌 완등을 하면서 큰 도움을 줬던 스페인 바스크 출신 세계적 산악인인 후아니토 오아르사발 대장과 인연도 소개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엄 대장은 “후아니토 대장의 제안으로 히말라야 8000m급 봉우리 5개를 같이 올랐다. 마칼루 등반시 선두에서 서서 어려운 루트를 뚫는 등 행동으로 보여주니까 스페인 대원들도 마음의 문을 열었다”면서 술회했다.

엄 대장은 16좌 완등 이후에도 히말라야 오지에 네팔 어린이를 위한 16개 학교를 건립하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현재 4개 학교가 문을 열었고, 5-6번째 학교가 내년 3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엄 대장은 휴먼스쿨 건립이유에 대해 “네팔 어린이들은 부모가 살던 것처럼 가난이 대물림된다. 어린이들에게 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희망과 꿈을 심어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4월 20일(토) 14시

나주 ‘미래산단’ 새 사업자 찾는다

시, 종합대책 마련... 책임분양 지분 나누고 금리 낮춰

나주시가 미래일반산업단지(미래산단) 조성의 자금조달 구조를 개선하고 새로운 사업자 공모에 나서기로 했다.

과도한 금리와 거액의 자문수수료, 책임분양 등 불리한 조건으로 증권사와 투자자문업체만 유리하게 계약을 체결해 논란이 일자(광주일보 3월20일자 1·2·3면) 그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나주시는 3일 “신용공여 의무 분산

과 이윤 및 수수료율을 낮춘 금융구조, 의회의 의결 및 동의절차를 거쳐 도록 하는 ‘미래산단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련규정에 근거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업구조를 변경하고 나주시의 책임분양 의무 등 신용공여도 금융사와 시공사, 민간투자자 등으로 분산하도록 했다.

또 사업비 조달방식을 자산담보부부 기업어음(ABCP) 외에 PF(프로젝트 파이낸싱)도 가능하도록 하고 금리도 6.5%에서 5.0%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시는 시행자 변경 동의안과 투자이행 협정(사업협약)체결 동의안, 신용공여 의결안 등을 의회 의결이나 동의를 거쳐도록 했으며, 이 같은 내용을 조만간 의회에 설명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오는 4월26일까지 제

안서를 받아 4월30일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현 사업자와의 계약 만료시점을 앞둔 5월 안에 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2000억원이라는 거액의 투자금을, 현 사업자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부담하면서 참여할 신규 사업자가 있을 지는 미지수다. 시는 5월 말까지 새로운 조건에 맞는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현 사업자와 계약을 연장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새 사업자 공모에 실패하면 부국증권과 이윤을 낮추는 등 불리한 사항을 개선해 재계약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순천정원박람회 무인케도차 운행 전면 보류

차량공급 지연·안전성 지적... PRT사업 총체적 부실

순천정원박람회(4월 20일~10월 20일) 무인케도차(PRT)가 적절한 안전성 검증 없이 운행된다는 지적(광주일보 3월 21일자 1면)과 관련, 순천시 PRT의 운행 계획을 철회했다. 차량의 안전성도 확보되지 않은 데다, 부품이 제때 공급되지도 않는 등 PRT사업이 총체적인 부실 덩어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충훈 순천시장은 3일 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원박람회 개막과 동시에 무인케도차를 운행하려 했으나 차량 공급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해 개막 행사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PRT는 박람회장과 순천만을 잇는

4.6km 구간에 높이 2.5~4.5m 궤도를 놓고, 4~6인승 소형 궤도차가 왕복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조 시장은 “차량 탑승객에 대한 안전성 확보도 담보되지 않은 점은 이번 운행 포기의 한 이유”라며 “그러나 차량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성 등이 확인되면 추후 운행 시기와 방법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인케도차 공급권자인 ㈜스코 측이 애초 박람회 개막때 전체 40대 차량 중 20대 공급을 약속했으나 이마저도 공급이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 운행 포기를 선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순천시는 정원박람회장~순천만

사이 4.6km를 오갈 단독 교통수단인 무인케도차 운행이 차질을 빚어 이 구간에 일반 차량의 통행을 전면 허용하는 방식으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한편 PRT 차량은 스웨덴 등지에서 수입, 국내에서 조립하는데 순천시는 박람회 개막 후 매일 5대씩 추가 투입해 박람회가 끝나기 2개월 전인 8월까지 40대를 정상 운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운임을 받는 정상 운행 전, 설계 과정에서 수정·보안 된 부분과 최종 안전성 여부를 전문검증기관을 통해 검증받아야 하지만 순천시는 이를 무시하고 임시 운행하려다 안전성 논란을 빚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순천=김은종기자 ejkim@

광주시 새야구장 2년 운영한 뒤 재협상으로

2014~2015년 수익금 분석·평가 후 기아차와 재협의

광주시가 신설 야구장 운영권과 관련해 기아자동차에 과도한 이익을 줬다는 감사원의 지적(광주일보 1월 14일자 2면)에 따라 2014~2015년까지 2년간 운영한 뒤 수익 분석 등을 통해 재협상하기로 협의했다.

광주시는 3일 “2014년 개장하는 새 야구장을 2년간 운영한 뒤 수익금을 분석·평가해 기아차와 재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 회계사 등이 참여하는 야구장 운영손익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수익금을 분석·평가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광주시가 기아차와 운영권(25년간) 협약을 맺으면

서 야구장 수입 시설물의 가치를 낮게 책정, 최소 154억원에서 최대 456억원의 이익을 기아차에 줬다는 감사원 결과를 지난 1월 발표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기아차에 체육발전기금 일정액을 출연하도록 하는 방안과 야구장 광고판매권, 매점 운영권 환수 여부 등에 대해 재협상에 나섰으나, 기아차에서 ‘아직 운영도 하지 않은 야구장을 놓고 이익금 등을 논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해 2년 뒤에 재협하기로 협상을 마무리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아자동차에 특혜를 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야구장 건설 재

원을 마련하지 못해 막았을 때 스포츠도자금 300억원과 기아자동차의 후원금 300억원을 확보해 지금의 야구장을 지을 수 있었으며, 이제와 특별에 운용하는 것은 광주시 공직자와 기아자동차의 선의에 맞을 박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단체는 기아차와 협약을 당장 폐기하고 재협약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참여자치21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5년 동안 최소 광고 수익 330억원, 임대료 100억원 등 430억원의 수익이 예상되는 만큼 이익부분은 광주 시민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지역갈등 끝장토론

지자체에 주민배심원제 공개토론 심의로 해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민 배심원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민 배심원제란 주민들이 배심원으로 나서 장기간 해결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지역 내 갈등을 이해당사자와 그에 대립하는 공무원의 의견을 들은 뒤 공개 토론과 심의를 거쳐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안전행정부는 3일 자체행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주민배심원제 도입 등의 내용을 권유하는 주민참여표준조례를 제정해 올해 하반기 각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행부 관계자는 “현재 주민참여 기본조례가 있는 지자체는 244곳 중 시·도 5곳, 시·군·구 31곳 등 36곳에 불과하다”며 “지방정부 정책결정과정에 주민 참여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표준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민 배심원제를 도입한 지자체로는 경기도 수원시와 울산광역시 북구 등이 있다. 수원시는 제작년 전국 최초로 시민 배심원제 조례를 제정하고, 시민배심원 심원을 공개모집해 선정하고, 작년 2월 시민배심원정을 처음 열었다. /연합뉴스

이전안내

광주한약도매시장(주) 정산한약방

한약·국산·수입한약재 한방에 대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독할(당두름)요목 분양

이전약도

광주한약도매시장(주) 정산한약방 광주결혼문화원

금호아파트 이마트, 서방사거리 육교정류소 06,19,83,180,184, 4,19정류소 55,98,151,518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1동 553-14
062)223-3399 / 223-6664

망치로 부셔먹는 독일전통과자

Schnee Pang(슈니팡) & 버블팡(버블음료)

3호점 슈니팡&버블팡 메가박스 광주점 4월 5일(금) 14시

파레스 호텔, 민속촌, (구)련던약국사거리, 메가박스 계림사거리 3개 구매시 영하권 (2중) 버블팡음료 1잔 무료증정, 무진주

4호점 순천 연향점 4월 20일(토) 14시

5호점 광주 전남대점 4월 26일, 6호점 전남 함평점 4월 26일, 7호점 광주 문흥점 4월 26일, 8호점 광주 봉선점 4월 26일, 9호점 광주 상무점 5월 3일, 10호점 광주 수완점 5월 3일

줄을 서서 사먹는 슈니팡&버블팡
광주·전남 가맹점 모집
062)523-1001, 010-5603-4709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학

북경당 한의원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클리닉

체성분 분석기 도입, 체지방분해침 시술, 고주파 지방분해 시술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KT, 중앙초교, 금남로, 계림동, 구.한미소평, 동부소방서, KT, 중앙초교, 금남로, 계림동, 구.한미소평, 동부소방서

진료시간 평 일: 오전9시~오전7시 토요일: 오전9시~오전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진료문의 062)227-7575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80130-등-26%호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11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90평~28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80%진행중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운지구 영광 호남대학교 어등산골프장 어등산 빌리지

도심속 친환경 명품주거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062)952-5577